報 道 資 料

보 험 개 발 원

제공일자	2002년 3월 8일	
담 당 자	김병호팀장	031)642-1100
홍보담당	손지영책임	368-4106
		※ 총 1 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保險開發院(院長 林宰永)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2년 3월11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992년 자동차기술 및 손상차량 복원수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동차수리비의 적정화, 경감화를 실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그동안 연구소는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차량의 손상성·수리성 개선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 자동차제작사에 설계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 왔으며, 손상차량 수리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작업시간을 책정하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수리비 산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분쟁해소에 노력해 왔다.

또한 손상차량 수리기법 및 부품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리비용 경감화를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수리비 계산과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리비견적전산시스템(ARECCOM)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하고 있으며, 특히 설립 10주년을 맞아 금년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즉, 차량의 수리성·손상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차명모델별 등급평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업계 등 관련업계와의 지속적인 상호협조 및 이해증진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